

#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한국판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송 보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자율적인 기능하기를 측정하는 간결하고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자기 일치, 통제 민감성, 관심 갖기를 설정한 Weinstein 등(2012)의 척도를 바탕으로 일반인과 대학생 표본에 대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통제소재, 삶의 의미, 마음챙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 분석을 통해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마음챙김과 삶의 의미의 설명량을 통제한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판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간결하면서도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자율적인 기능하기, 자율성, 자기 결정, 측정도구, 타당화

자기 결정성 이론(SDT; Deci & Ryan, 1985a; [Ryan & Deci, 2000](#))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성장 지향성과 함께 심리적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자기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적 통합(integration)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가정 하에서 인간은 외부에 의해 규정된 존재가 아니며,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이 강조된다(Sartre, 1996).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자율성이란, 자발적이고, 기꺼이, 선택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다(Ryan & Deci, 2000). 자율적인 사람들은 외부의 통제력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에 더 높은 주의(Deci & Ryan, 1985b; Scherhorn & Grunert, 1988; Vallerand et al., 1987)를 쏟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느낌,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Deci & Ryan, 1985a; 1985b).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은 자기 탐구에 개방적이고, 흥미가 있으며, 자신의 가치, 정서,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을 사용하여 일치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Weinstein et al., 2012). 높은 자율성은 성과에서 안녕감의 향상, 더 높은 인간관계의 질, 행동의 동기화까지 많은 긍정적 결과들과 연관된다(Vansteenkiste, Ryan & Deci, 2008, Niemiec, Ryan, & Brown, 2008). 자율적인 행동은 지속적이고 창의적(Deci, Ryan, Schultz, & Niemiec, 2015)이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Ryan & Frederick, 1997)을 주며,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웰빙(Weinstein & Ryan, 2011, Wilson, Sandoz, Kithens, & Roberts, 2010)에 영향을 준다. 또한 높은 자율성은 상호 관계성의 추구나 친밀감을 촉진하고(La Guardia & Patrick, 2008; Weinstein et al., 2010), 자율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 잘 기능한다(e.g., Deci & Ryan, 1985b; Koestner & Losier, 2002).

반면에 낮은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이 통제적인 영향력에 의해 규제된다는 느낌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행동을 '자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압박을 포함한 외적인 수반성(contingency; if A, then B)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는 특성을 갖는다(de charms, 1968; Ryan & Connell, 1989).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높고, 표면적인 정서 표현을 자신의 실제 느낌과 다르게

표현하는 불일치성을 보인다(Deci & Ryan, 1985b; Koestner, Bernieri, & Zuckerman, 1992).

자율성(autonomy)은 통제(control)와 대조되는데, 통제에 의한 행동은 자기와 동떨어진 것으로 경험되는 힘, 즉 외적인 수반성, 사회적 압력, 자존감이나 내적인 압박감에 의한 규제이다(Deci & Ryan, 2000).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로 간주하고 있다(SDT; Deci & Ryan, 1985). 그러나 유능성, 관계성에 비해 자율성이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널리 있어 왔다. Iyengar and Lepper(1999)는 아시아처럼 상호 의존적 자기 모형을 가진 사람들은 권위 있거나 신뢰하는 타인이 해준 결정을 따를 때 내적 동기가 높음을 제시하며 문화에 따라서는 높은 자율성이 더 나은 웰빙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했고, Oishi(2000)는 개인주의적 가치로 자율성을 측정하여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만족이 더 높지는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율성은 독립성이나 개인주의와는 다르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의존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타인에게 의존하도록 압박받을 수도 있다(Ryan, La Guardia, Solky-Butzel, Chirov, & Kim, 2005). 또한 자율성은 의사 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지려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은 집단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다르다. 즉, 자율적인 것은 행동의 주체임에 관련된 것이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행동의 우선적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성의 기능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발현하는 것이 때로 부적응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명소, 김혜원, 차정호(2001)에 의하면,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율성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기본 심리 욕구의 충족에 타인의 인정과 지지가 결정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교육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부모나 교사,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율성이나 유능성보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 만족을 더 중시한다(이명희, 김아영, 2008).

그러나 세월 호 사건과 2016년의 촛불 혁명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의식이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미투 운동을 포함한 다양성 존중에 대한 목소리와 인문학을 통한 ‘자기 찾기’ 열풍이 한창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자율성 또는 자기 결정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최근의 국내 연구들도 자율성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데, 행복 경험을 내적 동기와 의미감이 40% 이상을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구재선, 서은국, 2011), 자율성은 유능감과 관계성을 거쳐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전성희, 신미, 유미숙, 2011b; 전성희, 2014에서 재인용), 학업 성취(김아영, 2008; 조현철, 2011; 주희진, 2011), 주관적 안녕감(한소영, 신희천, 2009), 건강(이은하, 2011)와의 관계가 검증되어왔다. 현재까지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들은 학업 능력, 진로, 스포츠 심리학 분야(이민희, 정태연, 2007)에서 주로 활성화되어 왔지만, 자율성 연구는 개인의 성취와 행복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질로서 더욱 다뤄져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학업, 진로, 스포츠 등의 일부 분야에 다소 국한되어 이뤄진 자율성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간결하고 신뢰로운 다차원의 척도를 개발하려 한다. 지금까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해 개발된 자율성 척도들 중 한국판으로 개발된 것으로는 (1) 기본 심리 욕구 척도(김현주, 2010; 이명희, 김아영, 2008; 한소영, 신희천, 2006; 전성희, 2014), (2) 인과 지향성 척도(이다숨, 2009), (3) 자기결정성 척도(최한별, 2006) 등이 있으나, 연구들은 교육과 학업 분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거나(전성희, 2014; 이명희, 김아영, 2008; 김현주, 2010), 직업, 인간관계 등 특정 영역의 시나리오를 다루거나(이명희, 김아영, 2008), 스포츠(이보람, 정지혜, 2015)나 조직 영역(이다숨, 2009)에서의 자율성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세 가지 차별적인 하위 요인을 활용하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자율성의 중심적인 특징들로 구성된 자율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고전과 현대 이론 전통들은 자기 일치, 관심갖기, 낮은 통제민감성이 특질 자율성의 핵심임을 제안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이론가들이 자율적 기능하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특질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살펴보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중심적인 특성에 따라 특질 자율성을 정의하고 측정함으로써 특질 자율성을 확인하여, 기존의 자율성 척도들을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개발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과 관련됨을 보여줄 수 있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장 지향성과 개인적 통합의 추구를 가정하고 있으며, 생물학적이고, 발달적, 사회적인 요인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성장과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을 택한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사회화의 조화를 이루고, 자아를 초월하는 것에서 떨어질 수 없다(Niemiec, Ryan, & Brown, 2008).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행복을 만족 수준 또는 결과로 보는 쾌락추구적(hedonic well-being)한 관점보다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는 의미추구적 행복(eudaimonic well-being)의 관점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더 마음챙김하고 흥미를 두면(take interest), 더 자율적으로 동기부여되며, 더 충만하고 만족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Ryan, Huta, & Deci, 2008). 의미추구적 행복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더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관련된다(Ryan, Huta, Deci, 2008).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개발은 자율성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심리 행동적인 자율성의 선행과 결과 변인에 대한 추후 연구들에 기반적 역할을 할 수 있다(Weinstein et al., 2012)

다음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기반한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를 이루는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저작권(authorship)/자기일치(self-congruence)

자율성의 핵심이자, 잘 알려진 특징은 자율적일 때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의 저자(author)임을 경험하고, 자신이 취한 행동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이다(Pfander, 1911)(Weinstein et al., 2012에서 재인용). Authorship 또는 자기일치는 실존적 문헌들에서 **진정성(authenticity)**으로 설명되는 것과 비슷하다(Sartre, 1956). 김세원(2012)에 따르면, 진정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권력과 같은 외적인 압력이 제시한 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아에 따른다는 것으로, 자율적일 때의 행동은 지속적인 가치, 욕구, 흥미에 기반한다는 자기 결정성 이론의 연구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Deci & Ryan, 1985b; Koestner, Bernieri, & Zuckerman, 1992; Vallerand, Deci, & Ryan, 1987; Zuckerman, Gioioso, & Tellini, 1988). 경험적 연구들은 자율성에 의해 행동하는 개인들이 행동, 태도와 특질의 높은 일치성을 보임을 밝혔다(Koestner et al., 1992; 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6).

## 관심 갖기

자율성의 두 번째 측면은 관심 갖기(interest-taking)이다. 관심갖기는 개방적이고 비판단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얻는 것이다.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자기 탐구의 방편으로, 내적인 긴장감이라는 정서가 주는 정보를 깨닫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 예다(Deci, Ryan, Schultz, & Niemiec, 2015). 관심갖기는 경험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주의를 포함한다(Hodgins & Knee, 2002; Weinstein, Deci & Ryan, 2011). 그래서 자율적인 사람은 자기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Mead, 1934; Ryan &

Deci, 2006). 관심 갖기는 높은 자율성의 특징인 높은 수준의 자기 규제(self-governing)에 중요하다(Loevinger, 1976; Ryan & Deci, 2006). 따라서 관심 갖기 요인은 일반 인과 지향 척도(GCOS, Deci & Ryan, 1985)에서 자율성의 중심적인 차원이며, 이 척도의 문항에서 가장 자율적인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반영적인(reflective) 선택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자기 결정을 위해 중요한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마음챙김과 관심갖기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둘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마음챙김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한 ‘허용적인’ 알아차림인 반면, 관심 갖기는 좀 더 범위가 좁고 뚜렷한, 자기 탐구와 연관된 수용성이다(Deci, Ryan, Schultz, & Niemiec, 2015).

## 낮은 통제에 대한 민감성

저작권과 관심갖기가 자율적인 사람이 보이는 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면, 통제나 압박감에 대한 민감성은 자율성에서 부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 번째 자율성 요인은 외적, 내적 압박이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 정도(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이다. 특질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개인적 선택권과 결단권이 더 적다고 인식하고, 행동을 타인의 기대감이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introjected)된 압박에 대한 반응이나, 스스로 부과한 ‘해야 한다’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Meissner, 1988; Ryan & Connell, 1989).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환경적 제약들을 통제(controlling)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아이가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 진정성 있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는 동료, 자신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상사 등이 그것이다(Deci, Ryan, Schultz, & Niemiec, 2015).

경험적 연구들은 압박감과 긴장감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이 상태적인 자율성과 관련되고, 외적이고 내사된(introjected) 규제는 높은 내적 압박감과 관련됨을 지지한다(Ryan & Connell, 1989; Vallerand, 1997). 내사된 자기 조절을 하는 개인은 죄책감이나 불안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존심이나 자기-권력(self-aggrandizement)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자아-관여(self-involvement)나, 자존감에 심취(self-esteem-preoccupation)하는 것은 수용적인 알아차림과 대조된다(Niemiec, Ryan, & Brown, 2008).

##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서양에서 다각적인 타당화 과정을 통해 Weinstein, Przybylski, Ryan(2012)이 개발한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를 한국판으로 개발하여, 한국에서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1)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여 이론과 비교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른 표본에서 확인하여 요인과 문항을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2) 문헌 고찰을 통해 자율성과의 상관이 예상되는 내외통제소재, 삶의 의미, 마음챙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을 바탕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삶의 의미를 통제한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추가적 설명력을 확인하여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일반인 146명의 응답 자료와,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

는 학생 156명의 응답을 더한 총 302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내외였다. 응답자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척도의 범위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조정하여 이루어졌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대학학생들은 연구 참여 점수를 받았고, 오프라인 참가자들은 모두 소정의 증정품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n=302)의 평균 연령은 30.77세(범위=만19-65세, SD=10.811), 성별 분포는 남자 147명(48.4%), 여자 154명(50.7%), 무응답 3명이었다.

## 측정 도구

###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IAF)

Weinstein 등(2012)이 개발하고 본 연구에서 번역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로는 congruence 5문항, susceptibility to control 5문항, interest taking 5문항이다.

### 귀인양식 (Locus of Control: LC)척도의 통제부위 신념

박영신, 김의철(1997)이 개발한 귀인양식 검사의 통제부위 신념과 성패귀인 경향성 검사 중, 내적통제 요인 10문항, 외적통제 요인 10문항으로 이루어진 통제부위 신념을 사용하였다. 내적 통제부위 신념 변인은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결정된다는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며, 외적 통제 변인은 생의 사건들이 운명, 행운, 타인과 같은 외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 내적통제 척도의 신뢰도는 .850, 외적통제는 .786이었다.

###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 (Meaning In Life: MIL)

삶의 의미는 각 개인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으로서, 웰빙, 삶의 만족, 행복, 자기존중감, 타인에 대한 관대함, 적극적 참여 등과 관련된다(Debats, Drost & Hansen 1995).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이 번안한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를 측정하였다. 하위 요인은 의미추구(5문항), 의미 존재(5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1: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93이었다.

### 마음챙김 척도 (Mindfulness Scale: MS)

위빠사나 명상 이론에 근거해 개발된 박성현(2006)의 마음챙김 척도의 하위요인으로서는 탈중심적 주의(5문항), 비판단적 수용(5문항), 현재 자각(5문항), 주의 집중(5문항)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1: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7이었다.

###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 (Self-Esteem Scale: SES)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아 승인의 양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하위요인은 긍정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5문항과 부정적자존감 5문항을 포함한다. 리커트 5점 척도(1: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 그렇다)로 응

표 1 표본별 측정도구

	IAF	LC	MIL	MS	SES	PWBS
표본1 (N=94)	O	O	O	O	O	
표본2 (N=52)	O		O	O	O	
표본3 (N=156)	O		O	O	O	O

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7이었다.

###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46문항이며 자율성(AU), 환경통제력(EM), 개인적 성장(PG), 삶의 목적(PL), 대인관계(PR), 자기수용(SA)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각 요인은 7-8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1: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현재의 내 활동 반경을 넓힐 생각이 없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alpha$ )는 .947이었다. 각 표본에 측정한 도구들은 표1과 같다.

### 문항 개발과 자료 분석

원 척도의 의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을 위해, Weinstein 등(2012)의 원척도 15문항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5명의 영어 전문가에게 독립적으로 번역을 부탁해 번역의 뉘앙스를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김아영과 김은영(2003)이 언급하였듯이 타 문화권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역번역 기법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번역문들을 구글 번역기로 역번역하고 다시 재번역하는 삼중 과정을 거쳐, 한글로 된 번역문이 영어 원문과 동일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문항을 채택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 분석을 SPSS for window 22.0v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 결 과

### 문항 분석, 요인 구조와 신뢰도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문항이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N=302)에 대한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문항별 평균의 분포는 3.09에서 4.41, 표준편차의 분포는 .771에서 1.274였다. 문항-총점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문항-총점간 상관은 모든 문항에서 .308에서 .597까지로 유의미했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66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congruence=.776, susceptibility to control=.693, interest taking=.763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기술 통계치와 내적 합치도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문항별 기술통계치 및 내적 합치도 (N= 302)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거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자기 일치(Self-congruence)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776)	
1	4.23	.817	.308	.765
2	3.83	.990	.457	.755
3	3.72	1.009	.392	.762
4	4.16	.812	.439	.755
5	4.41	.771	.463	.754
통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Low Susceptibility to control)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693)	
6	3.41	1.077	.547	.602
7	3.30	1.238	.450	.603
8	3.09	1.220	.501	.581
9	3.74	.964	.380	.720
10	3.66	1.087	.479	.682
관심 갖기(Interest taking)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763)	
11	4.10	.833	.517	.780
12	3.26	1.274	.597	.748
13	3.90	.980	.581	.686
14	3.96	.986	.572	.688
15	3.96	1.004	.579	.683

## 탐색적 요인분석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한국판이 Weinstein 등(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표본을 합친 전체 표본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첫 번째 표본(N=157)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하위 요인 간 상관을 가정했기 때문에 사각회전(direct oblimin)을 설정하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 15문항의 3요인에 대한 KMO 값은 .682( $p < .001$ )로 적절한 수준이었고,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KMO-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  $\chi^2=797.038$ ( $p < .001$ )로 요인분석에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ruong & McColl(2011), Hulland(1999)이 요인 부하량이 .5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에 따라, 요인부하량이 .5이하인 9, 10, 11, 12번 문항을 제거하였고, 두 요인에 동시에 부하되는 2번 문항을 제외한 총 10개의 문항으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경제성을 위해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은 수의 문항을 구성하였다(유연재, 김완석, 2014).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이론과 마찬가지로 3개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이 설명하는 분산은 1요인(관심갖기)이 22.119%, 2요인(통제민감성)이 16.994%, 3요인(자기일치)이 16.138%로, 누적하면 전체 변량의 55.252%를 설명하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최종 문항들은 표4와 같다.

표 3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157)

	요인1	요인2	요인3
IAF13	.907		
IAF14	.881		
IAF15	.604		
IAF7		.874	
IAF6		.662	
IAF8		.620	
IAF5			.759
IAF3			.705
IAF4			.703
IAF1			.530

###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 구조를 확인한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가 다른 표본에서도 타당성을 갖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무작위로 둘로 나눈 나머지 표본(N= 146)에 대해 AMOS 2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700, 하위요인 별로는 자기일치가 .687, 통제 민감성이 .715, 관심갖기가 .801이었다.

Weinstein 등(2012)의 연구에 따른 3요인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하고, 대안 모형으로는 단일 요인 모형을 설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요인 모형은 CFI=.937, NFI=.905, TLI=.899, RMSEA=.072로 나타나, 팬츠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Browne & Cudeck, 1993; Little, 1997;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김지연, 김민희, 이정운(2018) 재인용). 반면에 단일요인 모형은 모형 적합도 지수들이 낮아 수용할 수 없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준거 관련 타당도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내적통제, 삶의 의미, 마음챙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예상되었다. 이에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내적통제.

Rotter(1975)에 의하면 내적 통제란, 자신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인식이다. 높은 내적 통제 수준을 가진 사람은 생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결정성 이론의 미니 이론 중 하나인 인지적 평가 이론에서는 통제소재가 내적 동기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가지고, 통제소재가 내적 동기에 대한 외부 요인의 효과를 매개한다고 주장한다. 즉 높은 내적 통제 수준은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내적통제와 .230( $p<.05$ )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일치와는 .406( $p<.01$ )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외적 통제 소재는 생의 사건들이 운명, 행운, 타인과 같은 외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정도로,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외적 통제 소재는 자율적인 기



표 4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최종 문항

문 항 내 용	
요인 1. 자기일치 (self-congruence)	1. 내 결정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느낌을 나타낸다. 2. 내 행동은 내가 진정 누구인가와 일치한다. 3. 나 자신은 전체로서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을 지지한다. 4. 내 결정은 내가 원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꾸준히 영향을 받는다.
요인 2. 통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 (Low susceptibility to control*)	5. 나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일들을 한다. (-) 6. 나는 창피함을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 7. 나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나 자신을 조작하려 한다. (-)
요인 3. 관심 갖기 (interest taking)	8.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 9.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10. 나는 내 감정을 조사하고 싶다.

능하기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하위 요인 중 자기일치와만 .211( $p<.05$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삶의 의미.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선행 연구(Weinstein et al., 2012)에서 명료한 삶의 의미와 .45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중 자기일치와는 .45( $p<.01$ ), 관심 갖기와는 .38( $p<.01$ ), 통제민감성과는 -.17( $p<.05$ )의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삶의 의미가 .666( $p<.01$ )의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수준에서도 삶의 의미는 자기일치와 .466( $p<.01$ ), 관심 갖기와 .317( $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통제민감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마음챙김.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선행 연구(Weinstein et al., 2012)에서 마음챙김과 .48( $p<.01$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 중 자기 일치와 .17( $p<.05$ ), 관심 갖기와 .57( $p<.01$ ), 통제 민감성과는 -.18( $p<.05$ )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과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391( $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는 자기일치와는 .379( $p<.01$ ), 통제민감성과는 .349( $p<.01$ )의 상관을 나타냈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자존감.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Weinstein 등(2012)의 연구에서 자존감과 .40( $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과는 자기 일치와 .31( $p<.01$ ), 통제민감성과 -.40( $p<.01$ )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기

표 5 3요인 모형과 단일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146)

모형	$\chi^2$	df	CFI	NFI	TLI	RMSEA
3요인	1.445	32	.963	.892	.948	.055
1요인	6.637	35	.485	.458	.338	.197

\* Weinstein et al(2012)은 통제에 대한 민감성 요인을 역산하지 않고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특성이 통제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 즉 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그래서 원 척도연구에서는 ‘통제에 대한 민감성’ 요인이 한국판에서는 ‘통제에 대한 둔감성’으로 바뀌었다.

표 6 자율적인 기능하기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

		자율적인기능하기	자기일치	통제둔감성	관심갖기
통제 소재 (N=94)	내적 통제	.230*	.406**	.159	-.138
	외적 통제	-.097	-.211*	-.069	.096
삶의의미 (N=302)		.666**	.466**	.060	.317**
마음챙김 (N=302)		.391**	.379**	.349**	-.055
자존감 (N=302)		.377**	.498**	.111	.071
심리적안녕감 (N=155)		.515**	.533**	.202*	.153

능하기와 자존감이 .377( $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하위요인 별로는 자기일치와 .498( $p<.01$ )의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통제둔감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Weinstein 등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심리적 안녕감.

Weinstein 등(2012)의 연구에서,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PANAS로 측정한 긍정정서와 .39( $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과는 .45( $p<.01$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 분석 결과,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심리적 안녕감과 .515( $p<.01$ )의 높은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 수준에서는 자기일치와 .533( $p<.01$ ), 통제 둔감성과는 .202( $p<.05$ )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관심갖기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자율성 요인과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389( $p<.01$ )의 상관을 보였다. 자율적인 기능하기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은 표6에 제시하였다.

## 중분 타당도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마음챙김과 삶의 의미의 설명량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마음챙김이 자율적인 기능하기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연구에 따라(Brown, Ryan, & Creswell, 2007b, Brown & Ryan, 2003), 마음챙김의 설명량을 통제한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심리적 안녕감의 추가적인 변량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 변인은 1단계에 마음챙김, 2단계에 자율적인 기

표 7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마음챙김, 삶의 의미와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위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단계	투입변인	R <sup>2</sup>	ΔR <sup>2</sup>	ΔF	β	t
심리적 안녕감	1	마음챙김	.470	.470**	135.708**	.686**	11.649
	2	마음챙김, 자율기능	.542	.072**	23.863**	.572**	4.885
						.291**	
심리적 안녕감	1	삶의의미	.404	.404**	103.784**	.636**	7.704
	2	삶의의미, 자율기능	.467	.063**	17.848**	.506**	10.187
						.682**	

능하기를 투입하였다. 전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마음챙김과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54.2%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양은 7.2%[ $F(2,152)=89.925, p<.001$ ]였다.

두 번째로,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삶의 의미에 더해 심리적 안녕감을 얼마나 더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내적 동기와 의미감이 40%이상을 설명함을 제시한 구재선, 서은국(2011)의 연구에 근거하여, 삶의 의미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된 후에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추가적인 설명량을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 변인은 1단계에서 삶의 의미를, 2단계에서 자율적인 기능하기를 투입하였다. 전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삶의 의미와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46.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 중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독자적으로 6%[ $F(2,152)=66.531, p<.001$ ]를 더 설명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Weinstein 등(2012)이 만든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가 한국 문화 속에서도 같은 구성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될 수 있는지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문항들의 문항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문항들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요인 구조가 이론에 부합하는 지 살펴보았고, 다른 표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교차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통제, 삶의 의미, 마음챙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Weinstein 등(2012)의 원칙도와 동일한 자기일치, 관심갖기, 통제에 대한 민감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0문항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척도로서, 자기일치 4문항, 관심 갖기 3문항, 통제에 대한 민감성 3문항으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미니멀한 문항 수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효율적인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동기를 무의식적 또는 자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행동의 원인에 관심을 갖고, 알아차림으로써 명확한 원인을 인식하여, 압박감보다는 일치감을 느끼며 행동하는 것이 자율성의 핵심이자, 기능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이론적인 배경 속에서 개발되었다(Weinstein et al., 2012).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관심 갖기(interest-taking)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찰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는다(Weinstein, 2010). 자기 일치(self-congruence)는 자율성을 따를 때 발현되는 결과물로서, 행동과 자기 보고한 특질과 태도가 일치함으로 나타나고, 통제 민감성(susceptibility to control)은 압박감이 직접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지 않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인 요인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측정도구는 자율성을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의 선행, 후속 변인들과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관심 갖기, 자기 일치, 낮은 통제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시켜 자율적인 기능하기를 지지하는 것이, 의미 추구적 행복(eudaimonic well-being), 정체성(Berzonsky, 2011) 등을 매개로 시민성(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지혜(Sternberg, 1998, Weinstein, 2010), 문제해결 능력(김교현, 2008), 앙트립프리니십(기업가정신, 김준태, 2014)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 증진이 어떻게 사회에 대한 기여와 사회 전체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차후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건강한 자기 규제에 중요한 것으로 지지되어 온 알아차림의 종류로써, 마음

챙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들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관심 갖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마음챙김과 구별된 이론적으로 관심 갖기 요인은 마음챙김과 비슷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측정된 마음챙김(박성현, 2006)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Weinstein 등(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마음챙김 척도(MAAS, Brown & Ryan, 2003)와의 상관을 살펴보거나, 다른 마음챙김 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외로 실시한 다른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관심 갖기가 마음챙김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임을 보여주어, 수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관심 갖기 하위요인은 자율적인 기능하기의 자기일치 척도와 .205( $p < .01$ ,  $N=302$ )의 상관을 보였고, 정서 지능(이수정, 이훈구, 1997)의 하위요인인 정서에 대한 주의와 .264( $p < .01$ ,  $N=146$ ), 정보형 정체감 유형 척도(이지현, 심혜원, 2014)와 .183( $p < .01$ ,  $N=302$ ), 개인적 신체 의식 척도(김지혜, 안창일, 1991)와 .224( $p < .01$ ,  $N=146$ )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관심 갖기 요인의 더 명확한 심리 측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내적 통제, 삶의 의미, 마음챙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심리 측정적인 준거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적절한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율성이 행복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선행 연구(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와는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자율적인 기능하기가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Ryan & Deci, 2001; Weinstein & Ryan, 2010)의 기대와 일치한다.

셋째,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삶의 의미를 통제하거나, 마음챙김을 통제한 이후에도 각각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삶의 의미, 마음챙김과는 다른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단회기 측정을 통해 진행되어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 연령대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율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성 지지 환경이나 진정성(authenticity, Wood, Linley, Maltby, Baliousis, & Joseph, 2008) 등을 포함한 자기 결정성 이론 내의 다른 가까운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밀접한 관계의 변인과의 모형 검증 등을 통한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력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는, 그 이론적 배경인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정의한 자율성의 핵심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면들을 정교화한 것이다. 자율적 기능하기의 한국판 개발은, 자기 결정 이론 연구자들이 자율적 기능하기의 핵심이라고 동의해 왔음에도, 지금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던, 자율성의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중요한 기저 과정의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자율성 척도들처럼 영역이나 상황 특정한 시나리오를 다루기보다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다차원적인 특질 자율성 개념을 측정하는 간결한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기능하기는 행복을 만족 수준 또는 결과로 보는 쾌락추구적(hedonic well-being)한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는 의미추구적 행복(eudaimonic well-being)의 관점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에, 장차 자율적인 기능하기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김교현. (2008).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285-306.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준태. (2014). 기업가정신의 본질이해 및 교육방안 탐색. 사회과교육, 53(4), 47-67.
- 김지연, 김민희, 이정윤 (2018). 시기심 대처양식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39-57.
- 김지혜, 안창일. (1991).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43-261.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아영, 김은영 (2003).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ractice in Cross-cultural tes adaptation of affective meas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2, 89-11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주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설명 변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 박성현. (2006). 마음챙김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1997). 한국 학생의 귀인양식 : 초 중 고 대학생의 비교. 교육심리연구, 11(2), 71-97.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61-195.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양명환. (2004).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한 레저스포츠 동기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2), 107-132.
- 오현숙. Kirstin Goth, 민병배 (2008).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91-407.
- 유연재, 김완석 (2014). 마음챙김 소비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2), 307-331.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다솜 (2009). 인과지향성 척도와 자율성 지지 작업환경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희, 정태연. (2007). 청소년용 학습동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청소년연구, 18(3), 295-321.
- 이보람, 정지혜. (2015).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스포츠동기척도 (SMS-K)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3), 29-40.
- 이수정, &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숙진 (2017). 최근 한국불교 수행공간에 나타난 자기 테크놀로지.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 289-323.
- 이은하 (2011).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동기강화 프로그램의 건강행위유지 효과: 고혈압 전단계 노인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지현, & 심혜원. (2014). 한국판 정제감 유형 척도 5 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1(5), 359-390.
- 이한중 (2012). 아동용 주장성 척도 (Child Assertiveness Scale) 와 Children's Assertive Behavior Scale 의 타당도 비교. 교육방법연구, 24, 713-728.
- 임숙희, 권선중, 김교현 (2013). 자율성과 마음챙김이 청소년의 게임 조절 동기와 문제적 게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903-930.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 논총*, 11(1), 107-130.
- 전성희 (2014). 한국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척도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1), 31-64.
- 조현철 (2011).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목표지향, 자기지각, 지능관 및 자기조절학습전략 요인들의 학습태도,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심리연구*, 25(1), 33-60.
- 주희진 (2011).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 237-259.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05-139.
- 최상진 (2011). 문화심리학: 현대 한국인의 심리분석. 지식 산업사.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한별 (2006).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결정감의 조절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1(2), 439-464.
- Berzonsky, M. D. (2011).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on identity construction.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55-76.
- Brown, K. W., Creswell, J. D., & Ryan, R. M. (Eds.). (2015). *Handbook of Mindful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Guilford Publications.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22.
- Brown, K. W., Ryan, R. M., & Creswell, J. D. (2007). Mindfulnes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vidence for its salutary effects. *Psychological Inquiry*, 18(4), 211-237.
- Brown, K. W., Ryan, R. M., Creswell, J. D., & Niemiec, C. P. (2008). Beyond me: Mindful responses to social threat. *Transcending self-interest: Psychological explorations of the quiet ego*, 75-8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hirkov, V., Ryan, R. M., Kim, Y., & Kaplan, U. (2003). Differentiating autonomy from individualism and independen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internalization of cultural orientation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97.
- Cicchetti, D. (1991). Fractures in the crystal: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the emergence of self. *Developmental Review*, 11(3), 271-287.
- DeCharms, R. C.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Deci, E. L.,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R.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1), 119-142.
- Deci, E. L., Ryan, R. M., Schultz, P. P., & Niemiec, C. P. (2015). Being aware and functioning fully. *Handbook of mindful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12-129.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109-134.
- Deci, E. L., & Ryan, R. M. (1985b).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4, 227-68.
- Diener, E., & Diener, M. (2009).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Culture and well-being*. 71-91. Springer, Dordrecht.
- Goffman, E. (194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5, 6-7.
- Hallowell, A. I. (1955). *Culture and Experience*.
- Hodgins, H. S., & Knee, C. R. (2002). The integrating self and conscious experience. *Handbook of*

- Self-Determination Research*, 87, 100.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2), 410.
- Koestner, R., Bernieri, F., & Zuckerman, M. (1992). Self-regulation and 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traits, and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52-59.
- Koestner, R., & Losier, G. F. (2002). Distinguishing three ways of being highly motivated: A closer look at introjection, identific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101-121.
- Knee, C. R., Lonsbary, C., Canevello, A., & Patrick, H. (2005). Self-determination and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997-1009.
- Kwan, V.S. Y., Bond, M.H. & Singelis, T.M.(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a Guardia, J. G., & Patrick, H.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s a fundamental theory of close relationships.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3), 201-209.
- La Guardia, J. G., & Ryan, R. M. (2007). Why identities fluctuate: Variability in traits as a function of situational variations in autonomy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75(6), 1205-1228.
- Little, T. D. (1997). Mean and covariance structures (MACS) analyses of cross-cultural data: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1), 53-76.
- Loevinger, J. (1976). *Ego development: Conceptions and theorie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111.
- Meissner, W. W. (1988). *Treatment of patients in the borderline spectrum*. Jason Aronson.
-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 Ryan, R. M. (2006).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5), 761-775.
- Pfander, A. (1911). *Motive und Motivation*. 163 - 195.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52.
- Roth, G., Assor, A., Kanat-Maymon, Y., & Kaplan, H. (2007). Autonomous motivation for teaching: How self-determined teaching may lead to self-determin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761-774.
- Rotter, J. B. (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1), 56.
- Rudy, D., Sheldon, K.M., Awong, T., and TAN, Hwee Hoon. Autonomy, Culture, and Well-Being: The Benefits of Inclusive Autonomy. (2007).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5), 983-1007. Research Collection Lee Kong Chian School Of Business.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an, R. M., & Deci, E. L. (2006).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y Inquiry*, 11, 227-267.
- Ryan, R. M., Deci, E. L., Grolnick, W. S., La Guardia, J. G., Cicchetti, D., & Cohen, D. (2006).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s*.
- Ryan, R. M., & Frederick, C. M. (1997). On energy, personality and health: Subjective vitality as a dynamic reflection of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5, 529-565.
- Ryan, R. M., Huta, V., & Deci, E. L. (2008). Living well: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eudaimon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139-170.
- Ryan, R. M., La Guardia, J. G., Solky Butzel, J., Chirkov, V., & Kim, Y. (2005). On the interpersonal regulation of emotions: Emotional reliance across gender, relationships, and cultures. *Personal Relationships*, 12(1), 145-16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Sartre, J. P. (1956). *Being and nothingness*.
- Sartre, J. P. (1996). *Existentialism is a Humanism*.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박정태 역(2008).
- Shapiro, D. (1981). *Autonomy and rigid character*. New York: Basic Books.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
- Sternberg, R. J. (1998). A balance theory of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4), 347.
- Truong, Y., & McColl, R. (2011). Intrinsic motivations, self-esteem, and luxury goods consumption.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8(6), 555-561.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271-360. Academic Press.
- Vallerand, R.J., Deci, E.L. and Ryan, R.M. (1987). Intrinsic motivation in sport.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s*, 15, 389 - 425.
- Vansteenkiste, M., Ryan, R., & Deci, E.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explanatory role of psychological needs in human well-being. *Capabilities and Happiness*, 187-223.
- Wayment, H. A., & Bauer, J. J. (2008). *Transcending Self-Interest: Psychological Explorations of the Quiet Eg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instein, N., Hodgins, H. S., & Ryan, R. M. (2010). Autonomy and nondefense in dyads: The effect of primed motivation on interaction quality and joint creative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2), 1603 - 1617.
- Weinstein, N. (2010). Interest-taking and carry-over effects of incidental rejection emo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 Weinstein, N., Deci, E. L., & Ryan, R. M. (2011).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integrating positive and negative past ident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3), 527.
- Weinstein, N., Przybylski, A. K., Ryan, R. M. (2012). The 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Development of a scale of human autonom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 397 - 413.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22.
- Weinstein, N., & Ryan, R. M. (2011).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understanding stress incursion and responses. *Stress and Health*, 27, 4-17.
- Wertsch, J. V. (1991). *Voices of the Mind: A Sociocultural Approach to Mediated Action*.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Wilson, K. G., Sandoz, E. K., Kitchens, J., & Roberts, M. (2010). The Valued Living Questionnaire: Defining and measuring valued action within a behavioral framework. *The Psychological Record*, 60(2), 249-272.
- Wood, A. M., Linley, P. A., Maltby, J., Baliousis, M., & Joseph, S. (2008). The authentic person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hentic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385.
- Zuckerman, M., Gioioso, C., & Tellini, S. (1988). Control orientation, self-monitoring, and preference for image versus quality approach to advertis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1), 89-100.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Bomi Song   Wanseok G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Autonomous functioning means to be the author of one's behavior. This study is to develop a simple,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for assessing autonomous functioning.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trait autonomy has promote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Three sub-constructs including self-congruence, interest-taking, and low susceptibility to control that have theoretically driven by self determination theory, consist of Korean version of IA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ational analysis to criterion, and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Korean version of IAF was a reliable, valid instrumen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on the development of a brief, reliable trait autonomy scale based on theor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presented.

*Key words : Index of Autonomous Functioning, Autonomy, self-determination, scale development, validation*